

---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물관 제8기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입니다!

이번 6월 기사의 주제는 '상명대학교 박물관'이었는데요.

기자단 위촉식 때 소개를 받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종강 후에 개인적으로 또 다녀왔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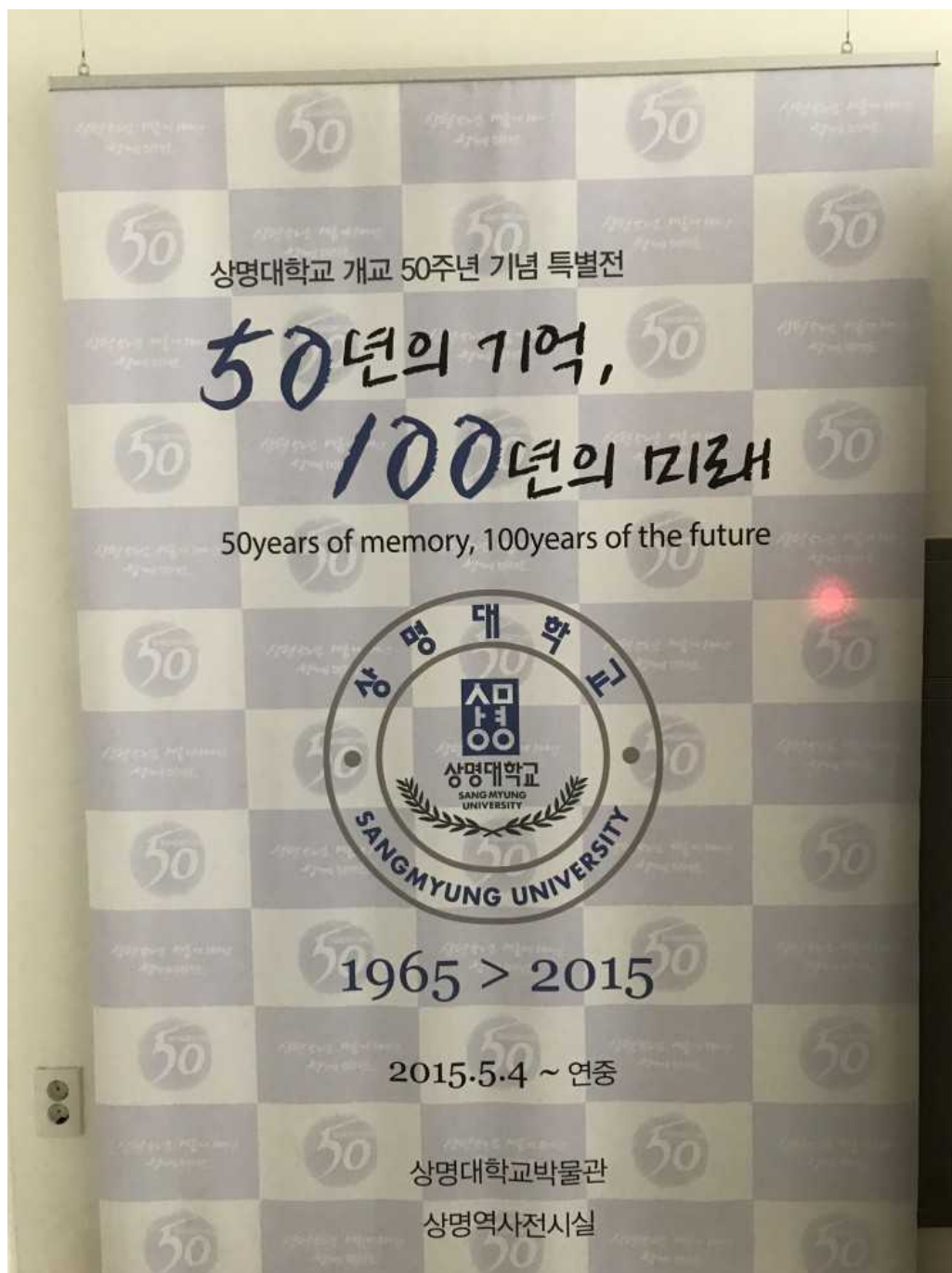
먼저 상명대 박물관은 '상명대학교 스뮤하우스(평창동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어요.

상명대학교 박물관 가는 길을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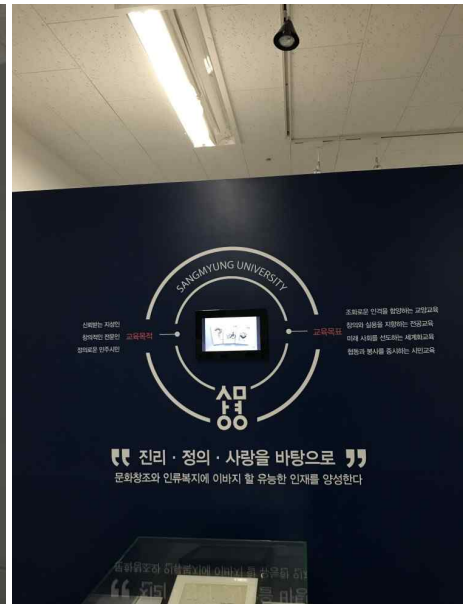




이 출입구로 들어가서 사진을 따라 쪽 걸어가면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전시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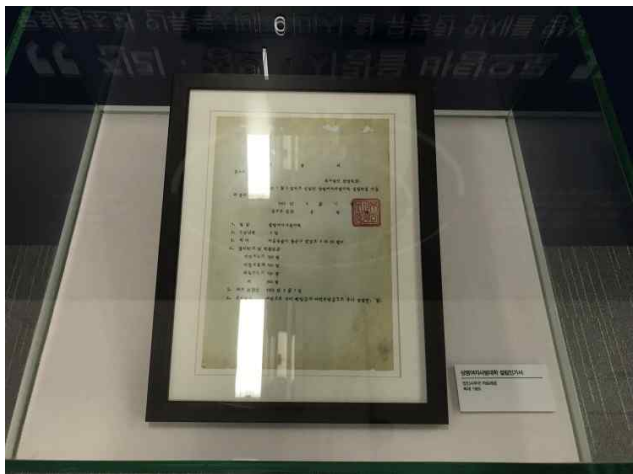
먼저 1층은 '상명 역사전시실'이 있습니다.



'상명 역사전시실'은 말 그대로 상명대학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가장 먼저, 설립자인 계당 배상명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있어요.



학교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학교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노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학생이지만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학교의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의 동아리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농구부의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시로 만나게 되니 반가웠어요!



학교 교포의 변화와 졸업생들의 기증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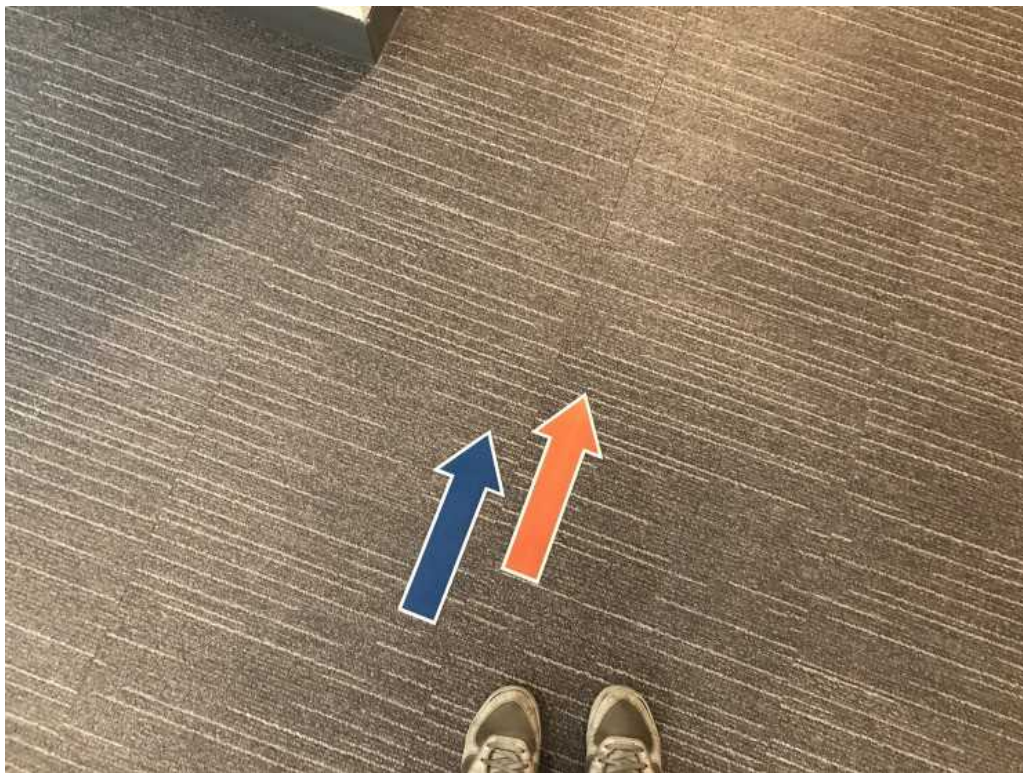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역대 이사장님과 역대 학장, 총장님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활동들이 많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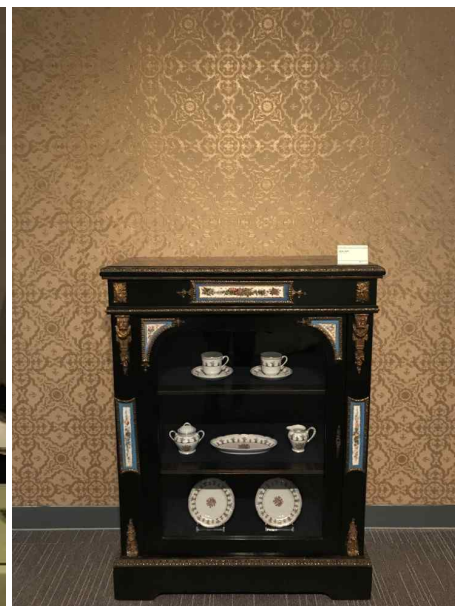
한 층을 더 올라가면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기증 전시실'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상설전시실'에 가볼까요?

상설전시실은 '유럽의 향기 도자기에 머물다'라는 주제로 유럽의 도자기를 볼 수 있는 전시실이에요.



전시를 보기 위한 가이드 표시가 바닥에 있어요!





왼, 위: 마이센 베이스, 클락, 캔델라브라 / 가운데: 드레스덴 보울, 박스 & 베이스 / 오: 로젠탈 베이스, 로열본 베이스

마이센 베이스와 로열 크라운 더미 이마리 패턴 베이스와 커피세트, 드레스덴 보울과 같은 유럽의 19-20세기의 자기들을 볼 수 있어요.



위의 두 전시 사이에 이렇게 전시품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세브르 베이스'는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베이스예요.  
프랑스에서 18세기에 만들어진, 예쁜 남색의 베이스랍니다.



TV에서 몇 번 봤던 꽃무늬로 이루어진 리모주 베이스 또한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코펜하겐과 빙앵그랜달의 자기들.



이건 '르네 라리고'라는 유리 공예가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인 '라리고 글래스 아트'입니다.  
장식품 뿐만 아니라 주얼리, 향수 용기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향수를 참 좋아하는 데, 이렇게 예쁜 병에 담긴 향수를 한 번 써보고 싶어요!



여긴 후르츠 패턴 베이스로 유명한 로열 우스터의 자기들이예요.



제작사별로 자신만의 특유한 색을 담은 자기들이 매력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기들을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영화를 보면 이런 티 세트, 커피세트를 사용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굳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정갈하게 갖춰진 세트를 실제로 보니 이해가 됐어요.  
저도 언젠간 역사와 전통을 갖춘 커피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싶네요!

상명대학교박물관 재개관 상설 및 기증유물 특별전

# 옛 유물로의 초대

-삼국에서 조선까지-

2012. 7. 2(월) 연중

상설전시실에는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류, 도기류, 자기류, 금속류, 국가유물 등 1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구려 금니소조여래입상은 북한 지역과 중국 만주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고려의 금동9층소탑과 더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큰 유물이다. 이 금속공예를 통해 우리 선조가 지니고 있었던 뛰어난 금속공예의 기법, 조형적 아름다움, 그리고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조선 백자 달항아리는 은은하고 깊이 있는 질감을 지녔으며, 백자청화모란문합에 그려진 밝고 깨끗한 모란문양과 더불어 가공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돌경, 청동인장, 와당, 락살, 연적 등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옆에 있는 기증 전시실은 "옛 유물로의 초대 - 삼국에서 조선까지-" 전시로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의 불교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개인 수집가이신 김대환 선생님께서 기증해주신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학생 때 시험지에서 자주 보던 옛 자기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자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옛 유물로의 초대' 전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선시대의 '백자 달항아리' 자기입니다. 달항아리는 조선시대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해요. 흰색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백자 달항아리 자기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익숙했던 조선의 백자청화들! 코발트계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투명한 백색 유약을 입혀 구워 만든 청화예요. 실제로 보니 청색의 무늬가 참 예뻐고, 고급스러웠어요. 당시 코발트 안료가 참 비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운 자기들이었어요!



백화 청화 연적입니다.

연적이란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해요!

작은 연적들이 참 귀여우면서 꽃무늬가 예뻐답니다.



떡살(좌)와 실패(우)입니다

맨 처음에 '실패'의 이름을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실패란 '바느질할 때 실을 감아 두는 도구'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의 '연화문 수막새'입니다.

연화문 수막새란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형성된 기왓등 끝에 사용되는 건축부재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것은 고려 시대의 '청동 인장'입니다.

청동 인장이란 개인이나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작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인장입니다.



고려 시대의 잔과 뚜껑, 접시(좌)와 유병(우)입니다.  
 각자 다른 디자인과 색을 가진 자기들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기들을 사용했을 삼국, 고려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 당시엔 자기들을 이용하여 담소를 즐겼을 거예요.

이렇게 상명대학교 박물관을 알아봤어요.  
 박물관이 학교와 조금 떨어져 있어 가기에 불편함이 있지만,  
 재학생으로써 꼭 가볼 만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에서 자기들에 대한 전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꼭 방문해보세요!

#### 상명대학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51